

17

주물 및 블라스팅 작업 이직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60세	직종	주물 및 블라스팅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김○○(남, 60)은 35년 전부터 15년 간 주물 및 용광로 작업을 하다가 1987년 D조선에 입사하여 1998년 8월 22일까지 블라스팅 작업을 한 후 2002년 10월 K의료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김○○은 입사 전 협력업체에서의 2년 반 정도를 합해 1987년 D조선에 입사하여 수행한 기간을 합해 총 13.5년 간 실리콘이 0.4~1.5% 함유된 연마재로 선박 부품(블록)을 블라스팅하는 작업을 하였다. 입사해서 처음 5년 간은 연마재인 steel grit으로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채 Cell 안에서 블라스팅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4년 간은 보호구 착용이 미흡한 채 블라스팅작업이 끝난 블록이나 발판 등에 남아있는 steel grit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였고, 1998년 8월 22일 퇴직할 때까지는 steel grit 회수 및 일부 기계 조작작업을 하였는데 과거 작업환경측정에서 (산화철)분진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D조선에 입사하기 전에는 35년 전부터 15년 동안 여러 업체에서 주물 및 용광로 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D조선에 근무하던 1995년도 특수건강진단에서 진폐증이 의심된 후, 진폐 정밀건강진단에서 진폐증 1형(1/1)으로 판정받았다. 1년 간 계속된 경미한 운동시 호흡곤란과 3주간 계속된 우측 흉통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방사선사진상 흉벽에 전이된 우상엽 폐암이 의심되어, 2002년 10월 2일 K의료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경피세침 조직검사상 선암으로 진단되어(T4N1M0, Stage IIIa) 2003년 2월까지 항암 화학요법 6회 및 28회의 방사선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2003년 4월 1일 사망하였다(1995년 이후 특수건강진단에서 촬영한 단순 흉부방사선사진 및 폐암으로 진단될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방사선사진을 재판독한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증 소견은 없음). 김○○은 군 복무 당시부터 하루 0.5~1갑씩 27년 정도 흡연하다가(13.5~27갑·년) 1994년 금연하였다 한다.

4 결 론

김○○의 폐암은

-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고,
- ② 폐암으로 진단되기 4년 전까지 13.5년 간 종사한 블라스팅작업에서는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③ 35년 전부터 15년 간 종사한 주물 및 용광로 관련 작업은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잘 알려져 있으므로,

과거 종사한 주물 및 용광로 관련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